

“미국인 58% 코로나 감염 이력”



▲ 11세 이하 어린이의 75.2%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인의 60%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당국이 집계한 통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람이 실제 감염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 비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이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 전역에서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피크론 변이 확산이 시작되기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서 코로나19 감염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약 30%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혈액검사에서는 이 비율이 58%로 급상승했다.

CDC가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080만명으로 2020년 기준 인구 3억2,950만명의 약 25%에 해당한다. 하지만 혈액검사를 통해 추정된 코로나19 실제 감염자 비율은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11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

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된 비율은 75.2%에 달했다. 12~17세 청소년도 74.2%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생긴 항체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긴 항체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어린이, 청소년의 4분의 3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재감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셀 왈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22% 상승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선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옛 직장 돌아가는 ‘부메랑 직원’ 늘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후회하며 전 직장에 돌아가는 일명 ‘부메랑 직원’도 늘고 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이직자가 전 직장을 다시 찾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채용 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뉴욕에서 채용 담당자로 일하는 로라 마줄로는 “이직의 기회가 온다면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선호하는 직장 상사 유형, 경력에서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 행복하다고 느끼는 직장 환경, 언제 일에 몰두하게 되는지 등을 적으라고 권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버티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충동적으로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직을 후회하는 이유다.

사회심리학자이자 하버드대 강사인

에이미 커디는 “일부는 단기적으로 그들이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직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마줄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주변에서 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현 직장에 불만이 없는 사람도 이직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직한 사람 중 상당수는 새로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경력 자문 회사 '더 뮤즈'가 올해 초 2천5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퇴사한 사람의 약 4분의 3은 이를 후회한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절반은 과거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용 담당자들은 이직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역할이 맞지 않거나 이전 직장에서 느꼈던 실망스러웠던 점이 새로운 곳에도 존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뉴욕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채용담당자로 일하는 셸 페이지는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팀, 최고의 직장 상사, 성장세인 회사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순 없다.”고 말했다.



▲ 이직한 사람 중 상당수는 새로운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안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